

호주의 기독교 교육 운동의 역사적 발전과 한국에 대한 시사

류재신(창원남중학교 교사)

논문요약

이 연구는 호주 기독교 대안 학교 운동이 한국의 기독교 학교 운동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착수되었다. 필자는 국비유학생으로서 호주 중등 사립학교인 ‘리디머 침례 학교’(Redeemer Baptist School)의 파견교사로 2004년 1년간 복무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이 기간 동안의 현장 경험과 이론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호주의 양대 기독교 대안학교 연합체인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CPCS)와 ‘기독교 공동체 학교’(CCS)의 역사와 교육철학과 교사교육 기관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두 연합 기관을 대표하는 두 개의 학교, ‘틴데일 부모 통제 학교’(TPCCS)와 ‘리디머 침례 학교’(RBS)를 택하여 교육 현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탐구했다. 그 결과 가정, 교회, 학교가 일치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 삶과 일치된 공동체 교육, 학부모의 자녀 학교 선택권 보장 그리고 수준 높은 기독교사 재교육 기관 설립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기독교 교육을 위한 호주의 여러 연합체들의 통일과 분열 운동 사례 역시 한국에서도 분열보다는 일치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육 운동의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안교육,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세계관, 비교 연구

- I. 들어가는 말
- II. 호주 기독교 학교 운동
- III. 호주 기독교 대안 학교의 두 사례
- IV. 호주 기독교 학교 운동: 한국에 대한 시사
- 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호주의 기독교 교육운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기독교 대안교육운동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해 착수되었다. 특히, 호주의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은 한국에 비해 30년 이상 앞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감당해왔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공교육에 실망한 호주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기독교 대안학교의 역사와 교육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대안교육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호주의 기독교 대안 학교란 1960년대 이래 공립학교 교육에 대해 대안을 선포하며 일어난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Christian Parent Controlled Schools: CPCS)와 ‘기독교 공동체 학교’(Christian Community Schools: CCS) 등 ‘그리스도 중심’(themelic) 학교로 불리는 두 형태의 보수적인 새로운 기독교학교들을 말한다. 여기서 ‘themelic’이란 용어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가 기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Long, 1996a: 13). 대입 중심 교육과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교육을 하는 가톨릭 학교들과 앵글리칸 학교들에 반대하여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themelic) 학교들이 세워졌다(Long, 1996a: 17). 호주 전역에는 이런 학교들이 약 300개교에 약 60,000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 이는 개신교 학교의 약 삼분지 일에 해당하고, 가톨릭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의 약 8.5%에 해당한다(AAAS, 2004).

따라서 이 연구는 호주의 3분지1에 해당하는 가톨릭 학교나 개신교단 소속의 기독교 사립학교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독교학교 운동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그 중 소수를 차지하는 ‘themelic 학교들’, 즉 기독교 대안학교에 한정된 연구임을 우선적으로 밝힌다. 필자는 2004년도에 1년 간 국비유학생으로서 호주 시드니의 기독교 사립학교인 리디머 침례학교(Redeemer Baptist School)에 교환 교사로서 근무하며 호주의 공교육과 기독교 대안 학교 교육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사용된 대부분의 자료들은 이 기간 중에 수집하였으며,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일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얻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 연구의 자료는 필자가 소속되었던 ‘리디머 침례 학교’(Redeemer Baptist School: RBS) 외에도 ‘틴데일 부모 통제 기독교 학교’(Tyndale Parent Controlled Christian School: TPCCS), ‘사우드랜드

대학'(Southland College: SC), '전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 NICE) 등으로부터 수집되었다. 특히 호주 의 전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NICE)에 등록하여 Diploma 과정을 공부하면서 호주 기독교 학교운동의 초석을 놓은 밥 프리스켄(Bob Frisken) 목사, 스튜어트 파울러(Stuart Fowler) 박사, NICE 교장인 리차드 에드린(Recharad Edlin) 박사 등을 만나 초기 호주 기독교 대안 교육에 관한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호주 기독교 대안학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는 먼저 호주의 양대 기독교 대안학교 연합조직인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 연합'(Christian Parent Controlled Schools Limited: CPCSL)과 '기독교 공동체 학교 연합'(Christian Community Schools Limited: CCSL)을 검토했다. 이들 조직의 기원과 발전, 교육사상과 특징, 교사교육기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양대 조직에 소속된 학교의 대표적 사례로서 '틴데일 부모통제 기독교 학교'(TPCCS)와 '리디머 침례 학교'(RBS)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학교의 역사, 교육철학 또는 원리, 교육의 강조점, 교육과정 또는 세계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II. 호주 기독교 학교 운동

1. 배경

호주 공교육은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먼저 교회에 의해서 세워졌다. 1793년 첫 함대를 따라왔던 리차드 존슨(Richard Johnson) 목사에 의해서 세워졌던 호주의 첫 교회 건물이 학교로 사용되었다(Roberts, 1989: 25). 1870년까지는 대부분의 호주 학생들은 영국 국교회, 가톨릭, 장로교, 감리 교회 등 의 교단 교회들이 세운 학교에 다녔다(Justines, 2002: 10). 그러나 점증하는 공적인 무신론주의 경향에 따라 호주에도 무종교적인 공립학교 제도가 도입되었다. 초기 기독교 교육적 전통이 공립학교 교육으로 전환된 요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의 증가로 기존의 호주의 기독교 중심적 공동체가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골드러시'로 급증하는 이민자들 때문에 호주의 다른 주보다도 더 비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사회를 형성했다(Austin, 1972: 12). 둘째는 호주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본질적인 필요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늘어나면서 공교육을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Roberts, 1989: 31).

공립학교들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상황에서 특정 종교적 가치와는 중립된 입장을 취해야만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Hill, 2004: 166). 그러나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배제하는 교육을 원하게 된 더 중요한 요인은 이성과 과학의 영역이 종교적 세계의 관점들을 대체하게 되었다고 여기는 소위 '교육의 중립성의 신화' 때문이다(Edlin, 1999: 42). 이에 따라 1872년 이후 점차 국가적, 세속적, 무상의 의무 교육 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 법령들이 마련되었다. 나아가서 교단적 배경의 학교들에 주던 정부 보조금 제도도 폐지되었다(Deenick, 1991: 238).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토대를 상실한 개신교 신자들은 1970 년대에 들어 사회의 세속화와 함께 다

원화된 호주 사회가 한 때는 주류를 이루던 기독교인들이 점점 소수가 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되었다. 공교육의 깊은 세속화 경향, 학문적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 생활 지도와 훈육의 부족 등 공립학교의 문제점 때문에 가치 교육과 종교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가 학부모들에게 각광받게 되었다(Symons, 2004). 세속적 인본주의, 윤리적 상대주의적 경향, 그리고 냉전에 의해 촉발된 공산주의 등도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기독교 학교들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Long, 1996b: 289). 여기에도 연방 정부 40%, 주 정부 20% 등 총 예산의 60% 이상을 사립학교들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정책 등도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성장에 기여했다(Marginson, 1992: 206).

2.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 (CPCS)

(1) 기원과 발전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CPCS)는 학부모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운영되는 학교 공동체이다. 이 학교들은 학교의 모든 구조와 교육과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창조주요 모든 법칙의 유지자로서 인정하고, 성경과 하나님을 모든 지식의 근원자로 이해한다. 기독교 부모 통제학교는 아동들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들 간의 역동적인 동역을 통하여 운영된다(CPCS, 2004).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CPCS)는 1950년대 초에 호주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화란 이민자 사회에 기원을 두고 있다(Deenick, 1991: 241). 그들은 대부분 화란 개혁교회 출신들이어서 처음에는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자녀 교육 책임자로서 부모의 자녀 학교 선택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들은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 운동을 시작했다(Justines, 2002: 60). 그 결과 1962년에 타스메니아주의 킹스톤 호브(Kingston Hobart)에서 처음으로 '칼빈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를 설립했다(Bennet, N., Mechielsen, J., Smith, M. & White, A. 1992: 11). 1966년까지 시드니의 '턴데일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와 퍼스의 '레호보스(Rehoboth)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가 문을 열었다(Deenick, 1991: 241).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는 1970년대 후반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Marginson, 1992: 201). 2004년 이후 매년 신설 학교가 생기며 2008년 현재 기독교부모 통제 학교는 86개 학교에 23,000명의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성장은 <표 1>에서 보듯이 90년대 이후에는 기독교 부모 통제학교를 포함하여 다른 기독교 학교들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PCS, 2008).

<표 1> 기독교 학교 수의 증가 1993-2003

년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학교 수	151	159	172	185	194	202	207	217	232	238	244	253	253

(출처: AACCS, 2004)

(2) 교육 사상과 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처음에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는 화란 개혁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화란 개혁주의 기독교 철학은 하나님과 모든 종류의 우상들 간에는 전혀 공유할 수 없는 반립(Antithesis)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Kalsbeek, 1975: 45). 창조와 관련한 모든 인간 사상과 행위는 결코 화해될 수 없는 두 종교적 원리들에 의해서 방향 지워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대체 신을 섬기는 불신앙으로 반응한다. 인간의 어떤 사상과 행위도 종교적으로 중립은 없다는 것이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의 교육 사상이다(Fowler, 1996: 71). 즉 가정교육이나 교회교육처럼 개인적 신앙이 표현되는 사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학교교육과 같은 공적인 영역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교육을 용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 두 주인을 섬기는 이원론적 교육으로 본다.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는 학교 교육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칼빈주의적 하나님 주권 사상에 기초되어 있다.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의 설립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심 개념은 ‘영역 주권론’이다(Justines, 2002: 44). 카이퍼(A. Kyper)는 국가와 가족은 독립적인 영역 실재이며 아동은 가족의 일원이므로, 아동을 교육하는 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부모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역할은 통치하는 것이므로 학교는 부모의 관할권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Fennema, 2006: 18). 부모 통제(Parent control)의 의미는 이 영역주권론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Dickens, 2004: 296).

언약에 관한 칼빈주의적 개념 또한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 교육철학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유아 세례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들을 믿는 자로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다. 즉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언약의 당사자들로 만드신다는 것이다. 즉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 통제학교의 사명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다(Justines, 2002: 45).

또한 온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문화 명령(창세기 1: 28,29)을 강조하는 교육도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의 특징이다(Oppewal, 2000: 15).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에서 문화 명령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학교의 모든 교육 내용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다(Piggin, 2004: 181).

(3) 교사 교육 기관 - ‘전국 기독교 교육원’(NICE)

‘전국 기독교 교육원’은 원래 ‘기독교 교육원’(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 ICE)으로서 빅토리아 주의 멜번에 둔 기독교사 교육 기관이었다. 그러나 비인가 기관이었던 ‘기독교 교육원’(ICE)이 1980년대 후반 문을 닫자 시드니의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 연합’(CPCSL)과 ‘기독교 공동체 학교 연합’(CCSL)이 협력하여 ‘기독교 고등 교육원’(Institute of Christian Tertiary Education: ICTE)을 만들어 두 단체의 공동 기독교 교사 교육 기관으로 출범시켰다. 그러나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 연합’(CPCSL)은 철저한 개혁주의 철학에 입각한 기독교사 교육을 위하여 1991년에 ‘기독교 고등 교육원’(ICTE)을 탈퇴하여 ‘전국 기독교 교육원’(NICE)을 창립하고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 교사들에게 개혁주의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인가된 학위 과정을 허가받기 위하여 ‘전국 기독교 교육원’(NICE)은 1996년에 다시 기독교 고등 교육원 (ICTE)과 연합하여 기독교 고등 교육대학(Colleg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CCHE)을 구성했다. 이 때부터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 연합’(CPCSL)의 교사 교육 기관인 ‘전국 기독교 교육원’(NICE)과 ‘기독교 공동체 학교 연합’의 교사

교육 기관인 ‘기독교 고등 교육원’(ICTE)은 ‘기독교 고등 교육 대학’(CCHE)이라는 한 지붕 아래 두 독립 가구를 이루게 되었다(NICE, 2005: 3).

‘전국 기독교 교’(NICE)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대학 수준의 교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전국 기독교 교육원’(NICE)은 성경을 모든 학교 운영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적용하며 교사들이 수학, 사회, 음악, 생활지도, 평가, 학부모 관계, 학교 운영 등 학교의 모든 부분에서 진정 기독교적이 되도록 연수시킨다. ‘전국 기독교 교육원’(NICE)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독교 교사 교육 제공
- ②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개발 촉진
- ③ 성경적 세계관을 명료화하고 훈육하기
- ④ 국제적 영역에서 기독교 교육을 지원하기 (NICE, 2005: 3).

3. ‘기독교 공동체 학교’(Christian Community Schools: CCS)

(1) 기원과 발전

호주에서 ‘기독교 공동체 학교’(CCS)는 1974년 리드콤-베랄라(Lidcombe-Berala) 교회와 레젠트 파크(Regents Park) 교회가 연합하여 첫 기독교 공동체 학교를 출범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RPCCS, 2004). 이 학교의 설립 동기는 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탈들을 해결하려는 의도였다. 그리하여 헤스터(Hester)와 로벗 프리스켄(Robert Frisken) 목사는 1976년 지역 교회의 중심 사역으로서 ‘기독교 공동체 고등학교’(Christian Community High School: CCHS)를 시작했다. 그 후 20여년 동안 90개 이상의 기독교 공동체 학교들이 생겨났는데 대부분은 지역 교회들에 의해서 설립되어 운영되었다(Frisken, 2004: 5).

1980년대에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와 ‘기독교 공동체 학교’는 급격히 성장했다. 1987년에 서로 협력 사역하고 대정부 관련,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와 기독교 공동체 학교의 연합 기관으로서 ‘호주 기독교 학교 연합’(Australian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AACCS)이 출범되었다(AACS, 2004). 그러나 호주 전역의 그리스도 중심 학교(themelic school)들의 단일 연합체였던 ‘호주 기독교 학교 연합’(AACCS)은 2004년에 분리되어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 연합(CPCS) 학교들과 일부 독립 기독교 학교들만 남게 되었다. 즉, 기독교 공동체 학교들(CCS)과 일부 독립 기독교 학교들이 ‘호주 기독교 학교 연맹’(Christian Schools Australia: CSA)을 구성하여 독립해 나가게 됨으로써 대정부 단일 창구에서 두 창구를 갖게 된 셈이다. 결국 기독교 공동체 학교연합(CCSL)은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호주 기독교 학교 연맹’(CSA)이 된 셈이다. 이러한 분열은 역시 개혁주의 신학 색채가 강한 학교들과 복음주의 신학 배경의 색채가 강한 학교들 간에 연합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호주 기독교 학교 연맹’(CSA)은 150개 학교에 50,000명의 학생을, ‘호주 기독교 학교 연합’(AACCS)은 100개 학교에 33,00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AACS, CSA 2008).

(2) 교육 사상과 특징

기독교 공동체 학교들의 특징은 지역 교회의 사역이라는 점이다. 학교에 의해 고용된 모든 교직원들이

그 학교를 운영하는 동일한 교회 소속 교인들이다.(Cannon, 2003a: 2). 기독교 공동체 학교들은 교육은 전인격적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개발하고 이를 모든 영역에 통합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기독교 공동체 학교는 학생과 교사 상호 인간관계 즉 공동체성을 중시한다(Frisken, 2004: 8). 가치와 신앙의 문제들은 일반 교육에 대한 부가물이 아니라,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 과정의 중심을 차지한다. 기독교 공동체 학교의 핵심 가치와 신앙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이 창조 세계와 성경 말씀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모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독교 학교에서도 위대한 교사이며 교사들의 모델이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하셨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따르도록 부르셨고 영생을 약속하셨다(요3: 16).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의 중심이며 이는 개인적인 응답을 요구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가이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자녀 교육의 책임을 행사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CSA, 2004).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CPCS)와는 대조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학교’(CCS)는 복음주의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구원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복음주의 전통이 기독교 공동체 학교의 중심적 사상이다. 이런 복음주의 전통은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을 인정하는 반면 종종 인간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 관점과는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Piggin, 2004: 181).

(3) 교사 교육기관 - 사우드랜드 대학(Southland College)

사우드랜드 대학(Southland college)은 1988년 창립된 ‘기독교 고등 교육원’(Institute of Christian Tertiary Education: ICTE)이 1991년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 연합회’가 ‘전국 기독교 교육원’(NICE)을 설립하여 독립해 나간 후 2004년에 새롭게 이름을 바꾼 ‘호주 기독교 학교 연맹’(CSA) 산하의 교사 교육 기관이다. 이 기관은 교사들에게 높은 학문적 엄격성과 명확한 기독교적 관점을 전수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고하고 통합할 수 있는 코스를 운영한다(Southland College, 2005: 2). 기독교 교사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와 가치들을 전수하는 사우드랜드 대학(Southland College)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교사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학사와 석사 학위 과정을 제공한다.
- 2) 교사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모든 교육에 적용하도록 훈련시킨다.
- 3) 가르침이 전문적이며 기독교적인 대학원생들을 양성한다.
- 4) 교육 분야에서 연구와 참여를 통하여 기독교 교육의 근거를 증진한다(Southland College, 2004).

‘사우드랜드 대학’은 ‘퍼시픽 힐스 크리스천 스쿨’(Pacific Hills Christian School) 교내에 별도의 건물에 사무실과 교실 한 칸 정도의 소규모 도서관을 두고 운영하는 원격 통신 교육기관이다. 호주 최대의 학교들의 기독교 교사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지만 오랜 역사에 비해 소규모의 학생들만 교육할 수 있는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등록 학생 수가 많지 않고, 이는 곧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교수진이나 도서관 장서나 규모 등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는 매우 부족한 점이 많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

제이기도 하다.

4.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와 '기독교 공동체 학교'의 비교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호주의 두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호주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이끈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CPCS)와 '기독교 공동체 학교'(CCS)의 역사와 교육을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두 운동의 공통점이다. 첫째 두 운동 모두 인본주의나 세속주의적 경향과 학문적 수준 저하나 학생 지도 불만족 같은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또한 그에 대한 대답을 철저한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 교육에서 찾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둘째로 두 운동 모두 이런 기독교 대안 학교 운동의 지속과 공고화를 위해서는 NICE나 Southland College 같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건설한 기독교사 재교육 기관을 확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호주 기독교 대안 학교 운동의 두 흐름

분 류	기독교 부모 통제학교(CPCS)	기독교 공동체 학교(CCS)
주창자	1950년대 화란개혁교도 이민자 학부모들	Hester, Friscken Bob 목사/ 지역교회들
동기	세속적 이원론적 인본주의 교육에 대한 반발	학생 이탈문제, 학력 저하 등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
시작	1962년 켈빈 기독교 부모통제 학교	1976년 '기독교 공동체 학교'(CCHS)
교육 사상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 절대 주권사상 • 영역주권론 - 부모의 교육권 • 켈빈주의적 언약사상 - 기독교가정 자녀를 교육 대상으로 함 • 문화명령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주의 전통 • 구원과정에서 인간의 노력 강조 • 교육 구성원간의 공동체성 강조 - 섬김의 삶 • 그리스도중심 교육 - 가치와 신앙교육
기독교사 교육기관	ICTE(1988이후)/ NICE(1991년 이후)	ICTE(1988년 이후) (Southland College; 2004년이후 개칭)
	CCHE(1996년 이후)	
연합체	CPCSL	CCSL/ CSA(2004년 이후)
대정부 교섭 창구를 위한 전국연맹체	AACS	AACS/CSA(2004년 이후)

다음으로 두 운동의 차이점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철학의 바탕을 이루는 신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

다.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CPCS)는 아브라함 카이퍼나 도예베르트 같은 신칼빈주의 사상에 입각한 화란 개혁주의 전통의 영향을 받은 만큼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과 영역주권론에 의한 부모의 교육 책임권이나 문화 명령을 강조하는 교육을 한다면 ‘기독교 공동체 학교’(CCS)는 개인 구원의 복음주의와 교육구성원 간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우리가 호주의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위한 노력이다. 두 운동은 비록 그 시작이나 신학적 배경이 달랐지만 모두 철저한 성경적 교육을 강조하는 만큼 그리스도안의 통일 운동에 힘을 쏟았다. 그래서 철저한 성경적 교육을 호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법령 마련이나 대정부 혹은 대사회적 영향력을 위한 단일 창구를 위하여 1987년부터 ‘호주 기독교 학교 연합’(AACS)을 조직하여 운동의 단일화 노력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단일화 노력은 기독교사 양성 기관도 처음엔 ‘기독교 고등 교육원’(ICTE)으로 단일화했다가 신학적 상이점 때문에 비록 ‘기독교부모통제학교’(CPCS)가 ‘전국기독교교육원’(NICE)을 창립하여 1991년에 분리해 나갔지만 여전히 ‘기독교 공동체 학교’(CCS)의 교사 양성 기관인 ‘사우드랜드 대학’(Southland College)과 공동으로 ‘기독교 고등 교육대학’(Colleg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CCHE)을 구성하여 단일 대학으로 정부 인가를 받은 학위를 주는 등의 일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의 일치 운동도 1991년에 ‘기독교 부모 통제학교’(CPCS)의 교육기관으로 ‘전국 기독교 교육원’(NICE)이 ‘기독교 고등 교육원’(ICTE)에서 독립한 것이나 2004년에 ‘호주 기독교 학교 연맹’(CSA)이 ‘호주 기독교 학교 연합’(AACS)에서 독립해나가는 것을 보면 결국 개혁주의 신학적 바탕의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CPCS)와 복음주의적 신학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 공동체 학교’(CCS)가 교사 교육기관이나 학교 연합 단체에서 각기 다시 원래의 같은 신학적 배경을 가진 기관들의 모임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현재 호주의 그리스도중심 학교(themelic school)인 기독교 대안학교 단체는 부모 통제 학교가 중심인 ‘호주 기독교 연합’(AACS)과 기독교 공동체 학교가 중심인 ‘호주 기독교 학교 연맹’(CSA)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는 호주에서도 신학적 배경에 따라 일치 운동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II. 호주 기독교 대안학교의 두 사례

우리는 앞 장에서 호주 기독교 학교 운동을 개관하면서 호주 기독교 대안학교의 두 흐름인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CPCS)와 ‘기독교 공동체 학교’(CCS)의 역사와 철학을 간략히 정리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그 두 단체를 각각 대표하는 ‘틴데일 부모 통제 학교’(TPCCS)와 ‘리디머 침례 학교’(Redeemer Baptist School: RBS)의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틴데일 부모 통제 학교’(TPCCS)

(1) 학교의 역사

호주 시드니에 있는 틴데일(Tyndale) 학교의 역사는 블랙타운(Blacktown) 개혁교회의 학부모들이

부모 통제 학교 설립을 검토한 1957년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심을 가르치길 원했다(TPCCS, 2005: 2). 이 학부모들은 자녀들인 학생들이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했다. 즉 이 부모들은 학교가 자신의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개혁주의와 동일한 가치와 신앙을 교육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적 시간적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틴테일 부모 통제 학교’는 1966년 2월에 초등학교, 1976년에 고등학교를 열었고, 그 이후 수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다(TPCCS, 2007).

(2) 교육철학

틴테일 학교의 비전은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성경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부모 통제 교육을 하는 것이다(TPCCS, 2005: 2). 틴테일 학교의 사명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다. 학교의 책임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기 위해 동역하는 곳으로 기독교 가정의 확장이다. 틴테일 학교의 목적은 학생들을 도와서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주인이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삶의 모든 영역에 확장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틴테일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천국을 맛보게 하며, 교육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는 것을 추구한다(TPCCS, 2007).

(3) 부모의 특별한 과업

‘틴테일 부모 통제 학교’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한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성경의 계명에 따라 양육하는 일이며, 이 계명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다. 이런 양육의 책임은 항상 부모에게 주어졌다. 모든 삶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받는 모든 지식의 영역에서의 종교적 특성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과업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지체로서, 학교는 이 책임을 부모와 함께 진다(TPCCS, 2004: 13). 교실은 다음과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고백 한다:

- 1) 부모의 책임과 권위가 존중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 2)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 3) 부모의 권위를 대신 행사하는 교사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TPCCS, 2004: 14).

(4) 교육과정

‘틴테일 부모 통제 학교’는 그리스도가 교육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요, 구원자 중의 구원자임을 고백한다(TPCCS, 2004: 18). 학교는 교육과정을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지도력에 따라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가치들과 우선권들이 학교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강조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공적인 행사들에서 왕과 주와 구주로 인정된다. 교사들은 부모들과 동역하며 교육과정의 모든 국면들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가르쳐진다는 것을 확신시키며 함께 사역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고 지지된다. 교과서와 학교 서류들을 포함한 모든 교재들은 성경적 진리의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평가된다. 성경은 학교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

의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의 모든 생활에 성경의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 모든 교직원들은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 연합회 산하의 교사 교육기관인 ‘전국 기독교 교육원’(NICE)에서 철저한 개혁주의 철학과 방법을 연수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교육 과정과 교직원 서로간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드러내도록 천명된다(TPCCS, 2004: 19).

2. ‘리디머 침례 학교’(Redeemer Baptist School: RBS)

(1) 학교의 역사

‘리디머 침례 학교’를 뒷받침하는 큰 공동체는 ‘리디머 침례교회’(Redeemer Baptist Church: RBC)이다. 시드니의 캐슬 힐(Castile Hill) 지역에서 30년 동안 자발적인 공동체로서 살아온 교직원들은 교회의 학교 사역을 하는 수도적 서약 단체에 서명함으로써 공동생활을 한다(Cannon, 2007: 30). ‘리디머 침례 교회’는 30여 년 전에 호주에 임했던 부흥 운동의 과정에서 탄생했다. 1960년대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마약 문제는 1970년대 초에는 가정 파괴율의 증가로 나타났다. ‘리디머 침례교회’는 자신들이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응답하며 문제 아동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했다. 1981년에 교회 사역의 자연스런 확장으로서 ‘리디머 침례 학교’가 창립되었다. 이 학교는 ‘기독교 공동체 학교’(CCS)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밥 프리스켄(Bob Frisken) 목사가 그 설립 단계부터 자문을 해 주었다(Bob Frisken과 2004. 7. 24 대담). 이것은 Redeemer 학교가 초창기 기독교 공동체 학교들의 선구적인 학교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한다. 1994년에 ‘리디머 침례 교회’는 학교 부지를 구입하고 2003년까지 새로운 부지와 시설로 이주를 완료했다.(Cannon, 2003b: 32).

‘리디머 침례 학교’(RBS)는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전적으로 운영하는 기독교 공동체 학교지만 학교 구성원 대부분이 교회 구성원이고 이들이 곧 학교를 운영하는 교직원이므로 학교도 소수의 가족 연합 형태로 운영하는 특수한 학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6명의 교회 장로가 곧 학교의 교장과 교감 및 교무부장 등 핵심 직위를 갖게 되어 이들 6명의 집안 형제자매들이 교권을 장악하게 되고, 장로 집안 이외의 교사 집안 가족들 간에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학교와 가정이 연합된 형태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직원 가족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 간에는 동일한 수준에서 학교와 가정이 연합되지 않아서 교직원 및 그 자녀들과 학생들 간에 종종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회가 한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교회의 권한과 학교의 권한 간에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2) 교육 원리

‘리디머 침례 학교(RBS)’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는 “좋은 이해를 얻는 것”이라고 밝힌다(Cannon, 2003b: 34). 좋은 이해를 얻는다는 것은 꼭 시험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학교의 캐년 교장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우선순위의 가치, 즉 서구 사회의 최고의 가치인 이익 추구하고 자기 가치 추구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리디머 침례 학교’(RBS)는 경쟁적이고 자기를 섬기는 관료적인 교육보다는 사려 깊고, 자유로우며 함께 나누고 존경하는 교육을 한다고 강조한다(RBS, 2004).

교사와의 우정 어린 공동체적 삶은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좋은 이해’를 얻도록 돕는다. 이것이 ‘리디머 침례 학교’(RBS)의 모든 교직원들이 먼저 교회의 학교 사역 단체에 서약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교직원들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분하는 선한 능력을 제공한다. ‘리디머 침례 학교’(RB)는 사실들에 대한 좋은 이해도 강조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그 분을 친구요 주님으로 동행하며 교체하는 삶은 그런 사실적 지식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와 구세주와의 친밀한 교제를 강조한다 (Cannon, 2005: 36).

(3) 공동체의 특징들

‘리디머 침례 학교’(RBS)는 ‘독립 기독교 학교 연맹’(AIS)과 ‘호주 기독교 학교 연맹’(CSA)에 속한 공동체 학교다. 또한 교회에 기반을 둔 학교이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서로를 섬기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 학교다(Cannon, 2005: 30).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말하는 캐넌(Cannon) 교장은 공동체란 단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는 개념만으로는 세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Cannon, 2005: 7). 공동체의 핵심개념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공동체는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삶과 물질을 나누며, 상담하고 격려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때 생긴다.

‘리디머 침례 학교’(RBS)는 경쟁적이고, 긴장하고, 자기를 섬기는 교육보다는 사려 깊고, 자유롭고, 삶을 나누고, 존경하는 교육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웃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약한 자를 돕는 교육 환경이다(롬12: 15).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이 학교 교사들은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듯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학교 내 모든 장소에서 항상 학생들을 관찰하며 보호한다. 학생들만 있는 시공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이 ‘리디머 침례 학교’의 학생 비행이나 폭력 예방 지도법이다(류재신, 2004: 47). ‘리디머 침례 학교’(RBS)의 입학 자격에 종교적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비 기독교 학생들이 많고 이들에 대한 복음 전도가 학교의 중요한 사명이다. 매년 8박 9일간의 학교 캠프는 ‘리디머 침례 학교’의 공동체 교육과 복음 전도 사명이 잘 드러나 있는 활동이다(류재신, 2004: 16))

(4) 기독교 세계관

‘리디머 침례 학교’(RBS)는 교육을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하학과 과학은 하나님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친다. 그렇다면 ‘리디머 침례 학교’(RBS)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세계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창조, 인간, 그리고 구원에 관한 관점이다(Cannon, 2003b: 33).

첫째, 창조에 관한 성경적 관점이다. 크리스천들은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롬1: 20). 보이는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둘째, 인간에 관한 성경적 관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때부터, 악이 인간의 역사 속에 파괴적으로 작용하며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인간 사회와 전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창조 세계는 죄의 긴장 아래서 신음하게 되었다(롬 8: 22).

셋째, 성경적인 구원 관점이다. 사람들을 형성하는데 교육의 요소가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 개인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각기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을 패배시키고, 죄를 용서하며, 사람들이 영원히 가치 있는 회심의 경험을 하여 중생하도록 하게 한다(Cannon, 2003b: 35). 그러므로 ‘리디머 침례 학교’(RBS)는 모든 학생들의 개인적인 회심과 중생을 통한 구원 사역을 학교의 중요한 사명으로 본다. 이런 기독교 세계관과 공동체적 교육을 배우기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기독교사 교육 기관을 통하여 연수를 받고 있다(Cannon, 2007: 38)

3. ‘틴데일 부모 통제 학교’(TPCCS)와 ‘리디머 침례 학교’(RBS) 교육의 비교

우리는 위에서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인 틴데일 학교와 기독교 공동체 학교인 리디머 학교의 교육 내용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앞에서 논술한 내용을 간단히 도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각각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CPCS)와 기독교 공동체 학교(CCS)를 대표하는 틴데일 학교와 리디머 학교를 간단히 사례 연구한 결과 두 학교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두 학교 모두 공교육과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히 여기던 부모들과 일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교육의 이론과 실체가 모두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 있으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창조 세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우선권이 학교의 모든 생활에서 강조된다.

그러나 두 학교는 명목상의 기독교 학교들에 반하여 철저한 성경적 교육을 표방하며 나온 호주의 기독교 대안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이루는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CPCS)와 ‘기독교 공동체 학교’(CCS)의 신학적 배경에 따라서 여러 교육적 현안이나 내용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학교를 시작한 시기와 주체에서 틴데일 학교가 리디머 학교보다 10년 이상 앞섰고, 설립 주체도 학부모 단체와 지역 교회로 각각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호주 대안학교 운동이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가 기독교 공동체 학교보다 10년 이상 앞섰고,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는 화란 개혁주의 철학과 신학의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 공동체 학교는 일반 복음주의 교회, 특히 침례교회 중심의 지역교회의 신학적 배경을 담고 있음을 드러내는 배경이 된다.

이는 두 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육 원리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초가 개혁주의 철학과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는 교육 대상을 틴데일 학교는 기독교 가정의 자녀를, 리디머 학교는 복음 진도를 위한 불신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도록 귀결되었다. 영역 주권론의 영향을 받은 부모 통제학교인 틴데일 학교가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인정하는 반면, 리디머 학교는 교사, 학생 등의 상호 인간관계와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는 삶인 공동체 교육에 강조를 둔다는 점에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IV. 호주 기독교 학교 운동: 한국에 대한 시사

지금까지 우리는 호주의 기독교 학교 운동을 그 역사적 발달과 교육적 특징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

았다. 먼저 한국과 호주에서의 교육 상황은 대안학교 운동이 공교육의 문제점으로 출발했다는 점과

<표 3> ‘틴데일 부모 통제 학교’(TPCCS)와 ‘리디머 침례 학교’(RBS)의 교육 비교

항목	틴데일 부모 통제 학교	리디머 침례 학교
입학 자격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 원칙	종교적 제한없음
교사 구성	다양한 교단 배경의 크리스천	리디머 침례교회 출신
학교 시작	1966년 화란 개혁교회 학부모 중심의 학교 설립 위원회,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	1981년 청소년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 교육을 위해 리디머 교회 기독교육 헌신자들의 참여
교사 교육 기관	전국기독교교육원(NICE) 원칙	사우드랜드 대학 외에 다양한 기독교육기관
교육철학/교육원리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주인이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장되는 것 강조	‘좋은 이해를 얻는 것’ -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는 교사의 모범과 모델을 통한 교육 강조
교육의 강조점	교육에 대한 부모의 과업: 1) 부모의 책임과 권위가 존중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2)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3) 부모의 권위를 대신 행사하는 교사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경쟁, 긴장, 자기 섬기기 등의 개인주의적이고 서구 성공주의 교육관을 지양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유롭고 삶을 나누며 섬기는 공동체 교육(살림의 교육)
교육과정/세계관	하나님 앞에서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고 지지된다. 교과서와 학교 서류들을 포함한 모든 교재들은 성경적 진리의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평가된다. 성경은 학교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 * 개인의 회심과 중생을 통한 구원, 즉 복음 전파 미션 강조(캠프교육)

처음에 일부 소수의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그 운동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호주의 양대 기독교 대안 학교 운동인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CPCS)들과 기독교 공동체 학교들(CCS)을 통하여 모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작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호주의 부모 통제 기독교 학교 운동에서 보듯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와 신앙이 일치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교를 세워가야 한다. 학부모들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공교육의 이상성을 파악하고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학교 교육에서도 온전히 주이시며 왕이

되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중립성의 신화’를 파악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그리스도 중심 교육을 천명하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학교의 학문적 탁월성과 학생 생활 지도의 모범을 최고의 가치로 들고 있다. 한국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하나님 중심 교육이 공립학교의 인본주의적 교육과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크리스천 부모들은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종교적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의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한국 교회의 일치된 후원이 필요하다. 1950년대 호주에 정착한 화란 개혁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충실하기 위하여 여러 물질적 학문적 손해를 감수해가면서도 부모의 가치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독교 학교 건립 운동에 힘썼던 일은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준다.

둘째, 호주의 기독교 공동체 학교에서 보듯이 학교는 단지 삶과 유리된 지식과 경쟁을 가르치는 곳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삶을 살아가는 학생을 양성하는 공동체적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적 교육은 이론을 넘어서 교사의 삶과 모델 교육이다. 경쟁보다는 협동을 개인 중심적 학문적 수월성 교육보다는 섬김과 하나 되는 교육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교 내에서의 일탈과 폭력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선한 목자 같은 교사의 헌신이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의 자기자녀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호주에서 학부모 통제 학교나 기독교 공동체 학교들이 늘어나는 것은 뜻있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의 가치와 일치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집에 있을 때에든지 밖에서 공공장소인 길을 갈 때에든지 마음을 다하여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신 6:4-10). 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지식과 삶을 배울 수 없는 제도가 엄존하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 교육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교 선택권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호주의 ‘전국 기독교 교육원’(NICE)이나 ‘사우드랜드 대학’(Southland College)처럼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정부 인가의 수준 높은 기독교사 양성 기관의 설립 운동이 필요하다. 호주에서 30년 이상 꾸준히 기독교 대안 학교 운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수준 높은 기독교사 양성 기관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최근 급증하는 기독교 대안 학교들이 기독교교육을 제대로 가르칠만한 기독교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 대안 학교 운동이 그리스도 중심 교육을 학교 현장에 실현하는 교육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교육 운동이 분열보다는 일치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운동으로 방향 지워져야 한다. 비록 신학적 배경이 달랐지만 수준 높은 기독교사 양성 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 연합’(CPCSL)과 ‘기독교 공동체 학교 연합’(CCSL)이 공동으로 교사 연수 기관인 ‘기독교 고등 교육원’(ICTE)이나 ‘기독교 고등 대학’(CCHE)을 만들어 일치 운동을 하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호주의 기독교 학교 운동 역사에서 보듯이 일치 운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호주의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교육 기관이나 기독교 학교 연합체들도 일치와 분열을 반복하며 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기독교 교육원’(NICE)이 그 개혁주의 신학적 색채를 분명히 하기 위해 1991년 ‘기독교 고등 교육원’(ICTE)을 벗어나 새로 조직한 일이나 ‘호주기독교 학교 연합’(AACS)에서 기독교 공동체 학교들이 따로 나가서 2004년에 ‘호주 기독교 학교 연맹’(CSA)을 조직한 일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대안 학교 협의회가 기독교 홈스쿨링 연맹과 기독교 대안 학교 연맹의 모태가 되었다. 통일은 어렵지만 분리는 쉬운 일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십자가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도 일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V. 맺는 말

우리는 호주의 기독교 대안 학교 교육 운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독교 교육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학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세상의 청지기인 학생들에게 재능과 소명에 맞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아래서 창조 세계의 의미와 구조를 분간하도록 이끌며, 아동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고 발전시키도록 훈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도록 준비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는 배움을 위한 공동체다(Fowler, 2003: 22). 아동을 지도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균형 잡힌 인격자가 되도록 사회화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배우고, 살고, 섬기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소명에 기꺼이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Bennet et al, 1992: 10).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칠 책임을 주셨다. 부모는 그 책임을 피할 수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없다(Dickens, 2004: 292).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들을 위해 존재한다. 학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돕는 기관이다. 또한 학교는 교사와 부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사역하도록 존재하는 기관이다. 자녀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위와 권리를 인정하며 부모와 공동 사역하는 학교 공동체는 학교의 특별한 임무를 교회나 국가 혹은 외부의 어떤 권위에 종속시키지 않는다. 학교는 특히 가정, 교회 국가의 모든 정당한 권위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공동체 내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권위는 아동의 효과적인 훈육을 위해서 학교의 특별한 과업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라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성경적 의미의 학교를 구현하기 위하여 펼쳐온 호주의 기독교 부모 통제 학교(CPCS)들과 기독교 공동체 학교들(CCS)의 역사와 철학이 주는 시사점을 잘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안 학교 운동에 적절히 적용한다면 이제 출발 단계에 있는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건전하게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류재신 (2004), 『2004학년도 교원장기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창원: 경남교육청.

AACS (Australian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2004; 2007), Member schools.

www.aacs.net.au Date of access: 23 August 2008.

AUSTIN, G.. (1972), Australian education, 1788-1900: church, state, and public

- education in colonial Australia. Melbourne: Green wood Press.
- BENNET, N., MECHIESEN, J., SMITH, M. & WHITE, A. (1992), *Transforming Christian education*. Blacktown: Christian Parent Controlled Schools Ltd.
- CANNON, N. (2003a), Christian education in Australia. (*In unpublished Paper delivered at New Creation Teaching Ministry Pastors' School Workshop*).
- CANNON, N. (2003b), True education – in search of the connective tissue. (*In Redeemer Baptist School annual service of worship*). Sydney: Redeemer Baptist Press.
- CANNON, N. (2005), A good understanding. (*In Redeemer Baptist School annual service of worship*). Sydney: Redeemer Baptist Press.
- CANNON, N. (2007), Looking to the future. (*In Redeemer Baptist School annual service of worship*). Sydney: Redeemer Baptist Press.
- CPCS (Christian Parent Controlled Schools Ltd), (2004; 2007), About us www.cpcs.edu.au
Date of access: 7 JUNE 2004; 30 March 2007.
- CSA (Christian Schools Australia). (2008), Introduction to Christian Schools Australia. www.christianschools.edu.au Date of access: 23 August 2008.
- Southland College (2005), *A college guide*. Sydney: Southland College.
- DEENICK, T. (1991), Church and school. (*In A Church En Route: 40 Years of Reformed Churches of Australia*. Geelong: Reformed Church Publishing.
- DICKENS, K. (2004), “What else does parent control” mean? (*In Ireland, J. & Edlin, R., and Dickens, K. Pointing the way*. Blacktown: NICE.
- EDLIN, R. (1999)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 역(2004), 『기독교 교육의 기초』,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 FENNEMA, J. (2006), Transforming education. (*In Edlin, R. & Ireland, J. Engaging the*

culture. Blacktown : NICE.

FOWLER, S. (1996), Christian educational distinctives. Potchefstroom: PU for CHE. IRS. (Wetenskaplike bydraes of the PU for CHE. Series F 2, Brochures; no. 39)

FRISKEN, R. (2004), Christian perspectives on schooling in Australia: educational changes and the growth of Christ-centred schooling. (*In a history of Christian schooling*. The Macquarie Christian studies Institute. Sydney: Macquarie University.

Hill, B.V. (2004), Exploring religion in school. A national priority. Adelaide, SA: Openbook Publishers.

JUSTINES, C. (2002), Christian Parent Controlled Schools in Australia: Foundational values and prevailing practice. Doctoral dissertation of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KALSBECK, L. (1975),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Herman Dooyeweerd's thought*. Toronto: Wedge.

LONG, R. (1996a), New Christian school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39(2): 27-38, June.

LONG, R. (1996b), The development of 'themilic' schools in Australia. Sydney: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Ph. D. Dissertation.

MARGINSON, S. (1992), *Education and public policy in Australia*.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ICE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 (2005), *Course Handbook* Blacktown.

OPPERWAL, D. (2000), The school system and Calvinism: its religion-philosophical soil. (*In* the roots of the Calvinistic day school movement. Grand Rapids: Calvin

College. www.calvin.edu/academic/education/news/publications/monoweb/cejopl.htm, Date of

access: 31 March 2007.

PIGGIN, S. (2004), *Spirit of nation: The story of Australia's Christianheritage*. Sydney: Strand Publishing.

ROBERT, A. S. (1989), Australia's first hundred years: the era of Christian school. (In Graham McLennan. *Understanding Our Christian Heritage*, Vol 2. Woy Woy: Daunamis Press.

RBS (Redeemer Baptist School). (2004), Educational principle. www.redeemer.nsw.edu.ar
Date of access: 17 September 2004.

RPCCS (Regent Park Christian Community School). (2004), About us.
www.cchs.nsw.edu.au Date of access: 7 June 2004.

SYMONS, E. 2004. State schools need religion to instill values. Sydney: *The Australian*. 13, 25 October.

TPCCS (Tyndale Parent Christian Controlled School). (2005), *Hand Book*.

TPCCS (Tyndale Parent Christian Controlled School). (2007), About our school.
www.tyndale.edu.au Date of access: 30 March 2007.

Abstract

Historical Development of Christian Education Movement in Australia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Jae Shin Ryu(Changwonnam Middle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hristian education movement in Australia and find out its implications to Christian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We analysed the history, background and educational policy of Christian Parent Controlled Schools (CPCS) and Christian Community Schools (CCS) which were considered as the two main streams of the Australian thematic school movement. As a case study representing each stream, we also looked at two Christian Schools, the Christian Parent Controlled Schools (CPCS) and the Christian Community Schools (CCS). The CPCS has for instance been emphasizing parents' right of educating their children in schools of their choice and which suit their life views. The CCS, on the other hand, has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school as a learning community where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han how they teach or even what they teach. Based on this comparative study and a study of a biblical philosophy of education, an educational philosophy for Korea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could be suggested.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in Korea have to teach students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and philosophy. Korean education, public as well as non-government school education, has thus far been totally dualistic in that it has tended to separate fact and value, public realm from private. The Christian school rejects such dualisms and educates its students as complete and total persons to know this world, to live and survive in it, to practice their God-given calling of stewardship of reality, to maintain their cultural mandate, to serve God in doing so, and to love and serve their fellowmen.

호주의 기독교 교육 운동의 역사적 발전과 한국에 대한 시사

Key Words: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school, Christian 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Christian world-view, Comparative study